



- 1 ■ 회장인사말
- 3 ■ 2016년 임원진 명단
- 5 ■ 회원논단 -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우리는 안보주권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사드 문제와 한중관계’
- 7 ■ 학회소식
- 10 ■ 회원소식
 회원동정
 신간안내
- 11 ■ 2016년 학회비납부 현황
- 12 ■ 학회비 납부 안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16. 12. 31 발행인: 김태완

편집인: 김태욱

발행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104호

Tel:051-890-1388 Fax:0505-182-6847 E-mail:eaais@hanmail.net, Homepage: <http://www.eais.or.kr>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1월 6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우울하게 맞은 2016년이 벌써 두 달만을 남겨둔 채, 10월 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불과 8개월만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래, 10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의 소형화에 상당부분 진척을 본 것으로 국내외 당국들과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시로 감행한 로켓미사일 발사실험들을 통하여 핵의 장거리 운반수단에도 상당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24일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안보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강대강의 대결국면 구조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고, 1992년 수교이래 최고의 관계라고 평가받던 중국과의 관계도 사드배치 문제로 소원하게 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는 강력한 제재를 통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궁극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오바마 2기 정부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 및 일본과 북한의 지도부도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비슷하게 출발한 관련국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핵우산을 재차 천명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미국의 전략핵의 재배치 여론을 일축하고, 대북 경제제재에 한국과 함께 집중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원치않는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남북한을 잇는 가스관연결을 추진하다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우회정책을 추진할 태세입니다. 러시아의 사할린과 일본의 홋카이도를 잇는 가스관 건설을 일본 측에 타진한 것입니다.

일본은 올해 선거를 통하여 양원에서 모두 개헌발의가 가능한 2/3 의석을 확보하고 60%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개헌을 통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의 길로 나아갈 태세입니다. 중국도 10월에 있는 제18기 6중전회를 통하여 모택동의 1인지배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안착되어 온, 집단지도체제를 다시 시진핑 1인 지배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7상8하의 불문율도 무력화시킴으로써 장기 집권의 길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국제사회와 중국의 국내 외적인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 위하여서 시진핑 주석 1인으로 권력이 더욱 집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적인 체질을 강화하고 있는데, 남북관계의 경색과 국내적인 혼란을 맞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대한민국 출범 이래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정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져, 다음 선거를 기다릴 인내를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들의 자괴심과 분노는, 시민과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마저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는 형국입니다. 한 인간으로서뿐 아니라 정치학자로서 한없는 무력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성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나갈 젊은이들을 기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우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원님들과 더불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모두가 길거리로 달려 나갈 때, 그들의 달려가는 길이 바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분노할 때, 우리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들의 분노의 불길이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부도 국민도 의기소침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북한의 핵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변해가는 동아시아 정세를 바로 직시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 천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무수한 외침 속에서 생명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국제정세를 바로 보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입니다. 국제정세를 바로보고 활용하지 못해서 나라를 잃고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은 비단 우리 선조들의 헌신적인 독립투쟁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해방 후에 온전한 자주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분단되어 6.25의 뼈아픈 질곡을 지낸 것도 국제정세를 주체적으로 지혜롭게 활용하지 못한 책임이 작다 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로 연명하던 지구촌의 최빈국에서 당당하게 OECD국가의 일원이 되고 G20의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돋움 해 올 수 있었던 것도 국제관계를 잘 활용하고 국제사회와의 지혜로운 협력의 결과입니다. 이제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도 국제관계를 지혜롭게 활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제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삶과 통일 및 번영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합니다. 국제관계야 말로 5천만 대한민국인의 필수교양입니다. 비록 모든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주저앉아 망연자실 하더라도 우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원여러분들은 곳곳이 바로서서, 둘러선 강대국들이 우리의 경황없음을 이용하여 또 다른 불이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갈 때라도, 혹시나 어두움에 예기치 않은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더욱 커다란 횃불을 치켜들고 국민들의 발길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모습은, 부끄러운 마음이 억눌려 차마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사람을 대면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인류역사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구미의 선진국들을 돌아보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스스로 단두대에서 처형하기도 한 슬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혁명과 개혁을 명분으로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탄압한 비인간적인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공동체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값비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에게 부여된 피할수 없는 막중한 공동체적 책무이자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물어가는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회원여러분의 가내에 만복이 두루 가득하시고, 문운(文運)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장 김 태 완 드림

2016년 임원진 명단

회장	김태완(동의대)
차기회장	이정태(경북대)
고문	김관옥(계명대) 김순규(경남대) 김영문(영남대) 김옥준(계명대) 변창구(대구카톨릭대) 염동룡(동북아정책연구원) 이승근(계명대) 이종광(계명대) 이호영(창원대) 이홍중(부경대) 임석준(동아대) 정준표(영남대) 정천구(영산대) 정희석(경북대) 조경근(경성대) 주봉호(동의대) 허만호(경북대)
부회장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 김대홍(KBS) 김도태(충북대) 김주삼(조선대) 김진무(국방연구원) 김진영(부산대) 김성수(인제대) 김용환(한국해양대) 김진기(부경대) 박재욱(신라대) 배수환(동서대) 손기섭(부산외대) 오수열(조선대) 오일환(보훈교육연구원) 이기완(창원대) 이상환(한국외대) 이석수(국방대) 이철호(부산대) 임수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기원(해군사관학교) 전동진(신라대) 최영진(중앙대) 최수경(충남대) 홍우택(통일연구원)
국제 교류 위원장	장정애(제주주권연구소)
리더쉽 연구 위원장	차재훈(경기대)
미국 연구 위원장	조윤영(중앙대)
중국 연구 위원장	원동욱(동아대)
일본 연구 위원장	송석원(경희대)
러시아 연구 위원장	윤지원(평택대)
해양 연구 위원장	이승렬(해군사관학교)
평화 연구 위원장	이성우(제주평화연구원)
안보 연구 위원장	이인배(한반도미래포럼)
통상 연구 위원장	이성수(부산외대)
아세안 연구 위원장	최동주(숙명여대)
총무이사	심옥주(부산대) 서정경(성균관대) 차정미(연세대)
연구이사	박범종(부산외대) 김한권(국립외교원) 정한범(국방대)
홍보이사	김태욱(부경대) 이동민(단국대) 한형근(한국과학영재학교)

섭외이사	이흥규(동서대) 이신욱(동아대) 이주형(창원대)
국제이사	정성윤(통일연구원) 이윤식(경성대) 문경연(전북대)
편집위원장	임석준(동아대)
편집이사	김현정(동아대) 박찬표(목포대) 김상준(연세대)
편집위원	변영학(대구가톨릭대) 심흥수(경상대) 유병선(충남대) 이순주(울산대) 정세진(한양대) 지병근(조선대) 조철호(코리아정책연구원) 현진덕(강원대) 황기식(동아대)
감사	최병덕(금오공대)
이사	강경태(신라대) 강동완(동아대) 강성훈(부산대) 고성규(경기대) 고유환(동국대) 구춘권(영남대) 권선홍(부산외대) 권용립(경성대) 기광서(조선대) 김기석(강원대) 김대규(경주대) 김도경(동의대) 김동엽(부산외대) 김동현(건국대) 김명수(해군) 김미자(경북대) 김미경(히로시마시립대) 김상기(통일연구원) 김성철(세종연) 김세연(인제대) 김영일(신라대) 김용찬(대구가톨릭대) 김용현(동국대) 김주희(경희대) 김호준(부산외대) 김홍수(부산대) 나영주(강원대) 남일재(동서대) 도묘연(영남대) 라미경(순천향대) 로렌드윌슨(조지메이슨대) 류태건(부경대) 리단(부경대) 리청르(중국 사회과학원) 문경희(창원대) 박상남(한신대) 박성관(경남대) 박종철(경상대) 박홍석(동아대) 박홍영(충북대) 박훈탁(위덕대) 배병인(국민대) 사토노리코(부경대) 서유경(경희사이버대) 서재권(부산대) 설 한(경남대) 성장환(대구교대) 신연재(울산대) 심세현(중앙대) 안득기(국가안보전략연구소) 안상욱(부경대) 안숙영(계명대) 안철현(경성대) 양정훈(수원대) 안성호(충북대) 오창현(가야대) 우평균(한양대) 유명철(경북대)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윤이화(경북대) 이 경(영남대) 이대희(부경대) 이동운(신라대) 이무철(북한대학원대학교) 이성봉(부경대) 이원우(동북아역사재단) 이정호(부경대) 이정희(한국외대) 이유신(영남대) 이현근(부경대) 이철순(부산대) 이행봉(부산대) 임채완(전남대)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장혜영(중앙대) 전복희(항공대) 전홍찬(부산대) 정용하(부산대) 조성환(한신대) 조성환(경기대) 조재욱(경남대) 조찬래(충남대) 진시원(부산대) 채수도(경북대) 채장수(경북대) 최명해(삼성경제연구소) 최영호(영산대) 하상식(창원대) 하병주(부산외대) 하세현(경북대) 한의석(성신여대) 황지환(서울시립대)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중국의 사드 반대에 대해 우리는 안보주권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이홍종(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10월 15일 한미 양국이 선제타격 징후를 보인다면 미국 본토와 태평양 일대 군사기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완전 불바다, 완전 폐허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냈다. 한국에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는 미국의 종말단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해선 "꺾인 쪽박"이라고 폄하하며 자신들의 군사 위협을 무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내놔다.

소위 '평화운동가'란 사람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불러온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지린(吉林)·산둥(山東)·랴오닝(遼寧)성 등에 배치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도발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방어수단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위협에 대한 사드배치는 국민생명과 국가안전을 위한 최선의 결단이며 생존의 선택이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 사거리 3,000km급 이하 단거리 중,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요격할 수 있다. 고도 40~50km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직접 파괴는 물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MB)을 요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안보와 국익을 위한 필요한 대안이다. 물론 사드로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군사적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이다.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후유증과 관련해 미국이 괌의 미군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포대를 우리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공개했다. 전자파 측정을 실시한 결과 1.6km떨어진 곳에서 전자파 허용 기준치가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핵은 중국에 있어 '주변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불편한 문제이자 중국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불쾌한 문제'이지만 한국에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반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두고 중국이 "한국은 신중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한 대국논리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시비에 대해 안보주권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대신 한국의 핵무장은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금지하지 않는 농축과 재처리까지 만류하는 반(反)확산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핵 그림자'를 앞세우고 도발을 일삼거나 남북관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북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핵개발의 퇴행적 노선을 포기할 때만 해소될 수 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로 야기된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에 북한이 굴복했듯이 현재의 한반도 위기도 국민들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다.

사드 문제와 한중관계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이성일(李成日)

지난 9월 5일, 시지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항저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시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이 문제의 처리가 좋지 못하면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관 당사국 간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명확한 반대 의사와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드 배치는 국가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며, 한중관계와 중미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면서 "더욱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사드 논리는 중국의 그 어떠한 이해도 얻을 수가 없다. 특히 한국 내의 사드 배치 지지론을 보거나 심지어 '핵무장론'을 보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은 중국에 최대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른바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책임론'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인식이며, 중국으로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논리이다.

현재, 사드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중한 간의 입장과 견해는 아직까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7년 한중수교 25년을 앞두고 양국 사이의 불협화음을 예상하게 된다.

최근 한중 양국의 여론을 보더라도 한국 내 사드에 관한 여론의 열기가 더욱 높다. 한국의 대다수 매체는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대국주의 외교, 심지어 중화질서 회복이라는 이른바 '중국위협론', '중국패권론' 등의 논리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드 배치가 가져오는 파장, 즉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 전략적 균형 파괴의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어찌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핵보유 불용 주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실, 사드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만능의 도구가 아니며, 사드만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여론은 사드가 마치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식의 '사드 신화론'에 가까운 주장과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대북 강경 일변도 경향은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의 외교 감각과 형평성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에 대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1992년 9월, 한중 수교 이래 양국은 경제협력력을 기본 주축으로 정치, 사회, 문화, 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 문제로 인해 양국 간의 협력이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과거 경제협력력이 한중 수교 이후의 20여 년을 규정했다고 한다면, 사드 문제는 향후 한중관계의 20여 년을 규정할 커다란 사안이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성숙된 양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자세와 전략적 균형 유지가 매우 절박하다.

■ 2016년 사업계획

1. 학술대회

- 1) 춘계학술세미나(4월초)
- 2) 하계학술세미나(6-7월초)
- 3) 추계세미나(국제학술회의, 11월초, 1박2일): 한, 중, 일, 미
- 4) 동계세미나 및 총회(12월초)

2. 중점추진사업

- 1) 소득공제 단체등록: 기부금, 광고모금
- 2) 학회 뉴스레터 발간: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우송 및 인쇄물 송부(회비납부자)
- 3) 학회로고 및 엠블럼 추진
- 4) 회원확대-회비납부진성회원정리
- 5) 평생회원 명부 정리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춘계 학술대회

1) 4월 1일 춘계공동세미나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회장 김태완)와 (사)21세기 정치학회(회장 조경근)가 주최하고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와 경남통일교육센터가 주관한 학술대회가 4월 1일 창원대학교에서 열렸다. 각계 전문가와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4호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채택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따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자리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동북아 국제질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기완 창원대 국제관계

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사드, 한국의 선택’ 발제를 통해 “이번 사태는 미국의 핵우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보불감증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김현정 동아대 교수, 조경근 경성대 교수, 박종철 경상대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나영주 한국민족연구원 교수, 김태완 동의대 교수, 박선화 동아대 교수, 이호영 창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 4월 27일 공동국제학술대회



조선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북핵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4월 27일 오후 2시 경상대학 2층 경영산학관에서 열렸다.

조선대학교 개교 7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수중)가 주최하고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동근)·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회장 김태완) 주관으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학자들이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제1회의에서는 '북핵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제로 이신욱 동아대 교수가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 방안', 함명식 중국 길림대학 교수가 '북한-중국 비대칭 동맹관계의 재고찰'을 발표하고 제2회의에서는 '북핵과 동북아 안보질서'를 주제로 '북핵과 북중관계'(강용범 중국 천진외국어대학 교수), '북핵과 북일관계'(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다쿠쇼쿠대학 교수)가 발표되었다.

또 제3회의에서는 '4.13총선과 한국정치 미래'를 주제로 '총선과 한국정치의 가능성'(최영진 중앙대 교수), '20대 총선과정과 여야정당 공천파동 행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분석'(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장)이 각각 발표되었다.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추계 학술대회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는 정책연구원풀울림·부산국제교류협회와 함께 11월 11일 오후 2시 동의대에서 '아시아 변영을 위한 화해와 협력'이란 주제로 '201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16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시: 2016년 11월 11일 (금), 14:00-18:00
- 장소: 동의대 법정대학 세미나실(111호)
- 주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정책연구원풀울림, 부산국제교류협회

- 주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
- 주제: 아시아변영을 위한 화해와 협력
- 개회식: 14:00~14:30
 - 등록: 14:00~14:20
 - 개회사: 김태완(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회장)
 - 축 사: 이흥종(부산국제교류협회 회장)
- 학술대회 프로그램 (14:30~17:20)

제1회의(14:30~15:45):

Moderator: Kiwon Jun (ROK Naval Academy)

Presentation 1: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n East Asia”

Presenter: Hirata Ryo (Pacific Forum CSIS)

Discussant: Robert Kelly (Busan National Univ.)

Presentation 2: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AIIB, and Eurasian Initiative”

Presenter: Taewan Kim (Dong-eui University)

Discussant: Hong Jong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Coffee Break (15:45~16:00)

제2회의(16:00~17:20)

사회: 전세영 (부산교대)

발 표1: 미국의 對쿠바 정책전환의 결정요인 분석-북미관계에 대한 함의

발표자: 김동수(부경대)

토론자: 이신욱(동아대)

발 표2: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

발표자: 김주삼(조선대)

토론자: 김태욱(부경대)

발 표3: 이란핵문제해결로 본 북핵문제의 시사점

발표자: 이성수(부산외대)

토론자: 엄동용(부경대)

■ 만찬(17:30-20:00)

■ 2018년도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회장 선거 결과 공고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는 2016년 11월 30일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2018년도(차차기) 학회장 선거를 통해 손기섭(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가 2018년도 학회장에 선출 되었음을 공지합니다.

회원소식

■ 회원동정

○ 이흥종(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8월 30일『유럽연구』에 “셰일가스의 정치경제학: 러시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사)정책연구원폴홀림 원장인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7월 18일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7월 22일 부경대에서 "북한 핵과 사드", 8월 10일 부경대에서 "원전 안전한가? 필요한가?", 8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드와 국제정치", 8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태영호 망명과 북한의 변화", 9월 9일 부경대에서 "전기자동차와 글로벌시장", 9월 23일 부산 해운갤러리에서 "김정은의 성공한 도박 되물리기: 북한의 비핵화" 등을 개최했다.

○ 권무혁(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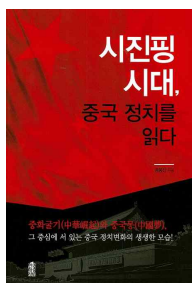
메일주소 변경: muhyeok3917@daum.net

○ 이정태(경북대학교)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주 소: 대구 북구 복현로 71, 103동 1203호(복현블루밍 브라운스톤 명문세가 아파트)
연락처: 010-9494-5093, 053-950-5212, E-mail: leejt44@knu.ac.kr

■ 신간 안내



공봉진 지음 『시진핑 시대, 중국 정치를 읽다』 한국학술정보 2016년.

『시진핑 시대, 중국 정치를 읽다』는 현대 중국정치 전반에 관한 해설서로서, 부정부패척결, 군개혁, 정치개혁 등의 최근 중국 정치변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도 학회비납부현황(12월 31일 기준)

No	성명	납부금액	No	성명	납부금액	No	성명	납부금액
1	강우진	50,000	22	강동완	50,000	43	안정화	30,000
2	고성규	70,000	23	박범종	50,000	44	이신옥	70,000
3	권무혁	30,000	24	박영환	30,000	45	이성수	50,000
4	김관옥	50,000	25	박휘락	50,000	46	이정태	300,000
5	김동현	70,000	26	성장환	50,000	47	이충희	30,000
6	김대홍	150,000	27	손기섭	150,000	48	임채완	50,000
7	김문영	50,000	28	송승종	50,000	49	정한범	50,000
8	김미자	70,000	29	송윤진	50,000	50	전광호	50,000
9	김세연	70,000	30	손 오말리	50,000	51	전세영	100,000
10	김옥준	50,000	31	신강석	30,000	52	정재요	30,000
11	김영재	50,000	32	심옥주	50,000	53	정준표	50,000
12	김정도	30,000	33	심흥수	50,000	54	조정인	50,000
13	김주삼	150,000	34	야마구치료	30,000	55	주용식	50,000
14	김지운	50,000	35	양기웅	50,000	56	주인석	50,000
15	김진영	50,000	36	양정훈	70,000	57	최영진	150,000
16	김태완	300,000	37	오창현	70,000	58	최수경	150,000
17	김태욱	50,000	38	유명철	50,000	59	최진우	50,000
18	김현정	70,000	39	유종선	50,000	60	하상식	50,000
19	김형종	50,000	40	이기완	60,000	61	한병진	50,000
20	나승학	30,000	41	이상환	150,000	62	한형근	70,000
21	도묘년	50,000	42	이소영	30,000	63	한의석	70,000

학회비 납부안내

■ 학회비 구분

학회비 구분	
회장/ 차기회장	30만원 (회비: 5만원, 회장회비: 25만원)
부회장	15만원(회비: 5만원, 부회장회비: 10만원)
이사	7만원(회비: 5만원, 이사회비: 2만원)
회원	전임(5만원), 비전임(3만원)
기관회비	15만원
입회비	면제

■ 학회비 납부안내

농협: 356-1108-2138-93 (예금주: 심옥주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